

 <p><b>정치하는엄마들</b> www.politicalmamas.kr</p>	<b>취재요청서 · 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8. 12. 03. 오전 11시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8. 12. 03.	총 4매 (별첨 0건)

## [긴급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유치원 비리 보장법> 발의, 협상은 끝났다! 유아교육 정상화, 이제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

▲자유한국당 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협상의 여지가 없다.

▲한유총 폭주와 유치원 대란 막으려면 유아교육법 24조2항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교육위 법안소위, 교육위 전체회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이제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쥐었음

▲바른미래당은 아이들의 편인지 한유총의 편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람

-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바른미래당 중앙당사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 자유한국당 <유치원 비리 보장법> 발의, 협상은 끝났다! 유치원 비리 근절, 이제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

□ 지난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이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유치원 비리 보장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자유한국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지원회계는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초·중·고처럼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지금처럼 원칙 없이 쓰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유치원 비리 보장법>인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가 시작됐었다. 유치원 회계에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을 사고, 외제차를 리스하고, 명품백을 산 것이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것이다. 자유한국당 법안대로 회계를 분리하면 지원금을 제외한 수입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감사를 할 명분이 사라진다. 즉 감감이 회계가 되는 것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법안에는 ‘관할청은 일반회계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유치원에 아이들 말긴 입장에서 ‘슈퍼을’ 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원장님과 이사장님한테 감히 지적질하는 게 쉬운 일인가? 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떠넘긴단 말인가? 운영위원회가 감사도 아닌 자문을 하면 유치원 회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공공성이 제고된 단 말인가? 회계가 분리되면 성인용품 영수증, 벤츠 리스 한 영수증, 루이비통 영수증, 자녀 연기학원 영수증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감사도 안 받게 될 것이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유치원 비리 사태가 촉발 된 이후, 사립유치원에 회계에 대한 교육당

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게 국민 정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회피하고, 학부모들에게 짐을 지우는 법안을 내놨다. 정말 나쁜 법안이고 정말 나쁜 국회의원들이다. 한유총은 웃고, 아이들은 눈물 흘린다. 한유총은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정말 좋겠다.

■ 의안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의원 등 26인)

■ 의안번호 : 2016973

■ 제안일자 : 2018. 11. 30.

■ 발의의원 명단(김한표 의원 등 26인)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성일중(자유한국당/成一鍾)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유재중(자유한국당/柳在仲)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이군현(자유한국당/李君賢)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홍문중(자유한국당/洪文鐘)

□ 다행히 온라인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전면 도입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신학기부터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써야한다고 밝혔다. 즉 사립유치원 회계분리는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이고 한유총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면 왜 자유한국당은 실효도 없는 <유치원 비리 보장법>을 발의한다고 시간을 끌었을까? 왜 한유총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일까? 민주당의 발의한 유치원 3법의 주요내용 10가지 중에 핵심조항은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안이다. 한유총이 박용진 3법을 두려워하고, 박용진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바로 24조2항 때문이다. 현재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교육비를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면 유치원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횡령죄로 처벌 받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에서 적발되면 부당집행 금액을 환수 조치 당했을 뿐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왔다. 교비회계에서 콘돔을 사도 무죄라는 것이 한유총이 끝까지 당당한 이유고 국회가 당장 메워야할 법의 허점인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유하늬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을 바꾸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든든한 뒷배이고, 50만 사립유치원 원아를 등지고 4천명에 불과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손을 들었다.

□ 한유총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불모로 결사 항전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킨텍스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대토론회 열었을 때는 한유총 비대위 차원의 집단행동은 없을 거라고 해놓고, 한 달 만에 아이들과 학부모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믿을 게 못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현실이 비참하다. 유은혜 부총리가 집단 폐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학기 유치원 대란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8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당국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학부모에게 폐원 협박을 하고 신입생 모집을 무기한 지연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부지기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유치원 대란은 가시화 될 것이다. 정기국회가 유아교육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이유

다. 에듀과인 도입한다고 사립유치원이 손해 보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대책에는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이 쏙 빠져있다. 즉 원장의 역대 연봉, 설립자 일가가 교직원으로 취업하여 고액 급여를 받아가는 문제는 미래진행형이다. 에듀과인 도입해도 별만큼 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그만큼 벌었으면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할 때까지 몇 해라도 아이들을 책임져야지, 예전만큼 못 번다고 아이들 쫓아내는 게 무슨 교육자고, 과연 사람이 할 것인가? 국가가 관리감독 한다고 사립유치원이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다. 한유총은 교육자스커녕 상도리도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

□ 자유한국당 법안 발의로 협상의 여지는 사라졌다. 이제 바른미래당의 결단만 남았다. 유치원 비라 사태 이후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모호하다. D-4 바른미래당은 한유총의 편인지 아이들의 편인지 밝혀라.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것인지, 유아교육을 정상화할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에 매몰될 것인지 정체를 밝혀라. 교육위 법안소위의 캐스팅보트는 임재훈 의원이 쥐고 있다. 교육위 전체회의도 이찬열 위원장은 사실상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임재훈 의원 결정에 유치원 대란이 달려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명단

소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안심사소위원회 (8인)	◆조승래 (趙承來) 박경미 (朴景美) 박용진 (朴用鎭) 박찬대 (朴贊大)	곽상도 (郭尙道) 김현아 (金炫我) 전희경 (全希卿)	임재훈 (林載勳)

■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현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16	15	7	6	2

구성	위원명	소속정당(선거구)	전화번호(호실)
위원장	 이찬열 (李燦烈)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	02-788-2975 (741호)

법사위도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케이배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열쇠를

취고 있으며, 본회의도 바른미래당 의원 30명이 유치원 3법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현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18	18	8	7	2	1

■ 국회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더불어민주당		116	13	129	43.14
자유한국당		95	17	112	37.46
바른미래당		17	13	30	10.03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14	0	14	4.68
	정의당	1	4	5	1.67
	민중당	1	0	1	0.33
	대한애국당	1	0	1	0.33
	무소속	7	0	7	2.34
계		252	47	299	100

2018년 12월 03일 현재

□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인용품을 횡령죄로!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예고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돈벌이가 줄어든다고 문을 닫겠다는 게 무슨 교육기관인가? 그런 자들이 무슨 교육자인가? 그걸 편드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인가? 지금 이 시간 국회 본청에서는 교육위 3차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떤 정당인지 궁금하다. 바른미래당은 바로 지금 결단하라!

2018년 12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